

[주일말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2018. 8. 5. 이현래 목사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정녕) 죽으리라(창2:15~17).”

# 창조의 축복: 통치를 위하여 형상과 모양대로, 분배를 위하여 흙-산혼으로

하나님 창조의 목표는 하나님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영역이다. 다스리며 지킨다는 말은 경작한다는 뜻이다. 땅을 경작하여 농사를 짓는 것처럼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이다.

하나님 따로 사람 따로 있으면 경작이 안 된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있으면 아기를 낳지 못한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씨이고 사람은 흙인데 이 둘이 합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씨와 흙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농사짓는 사람이 없으면 씨는 씨대로 선반이나 창고에 있고, 그리고 흙은 흙대로 땅에 있다.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이 필요하다.

농사를 지으면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수천배로 번식한다. 씨를 보면 먹을 수 없는데 농사를 지어서 과일이 열리면 아주 맛있다. 하나님도 그냥 먹을 수가 없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감당하겠는가? 전혀 성질이 다르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흙이니까 다른 동물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둘이 합해 놓으면 흙에 씨가 들어 간 것처럼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흙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자라게 한다. 잎이 나고 뿌리가 나고 열매를 맺는다. 신기한 조화이다.

남자도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여자도 혼자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어차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둘이 함께 있어야 된다. 이 에덴동산은 그런 곳이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고, 그것을 경작하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의 위치는 아주 놀라운 위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은 인성 안에서 사람 속에서 인격으로 경작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개발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비한 것이다.

충주에 가면 비료 공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비료공장이다. 박\*희대  
통령까지 왔던 공장이다. 공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가끔 가다 평~평~ 하는  
소리가 나는데 시내에서도 들린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공중에서 질소를 빨아  
들이는 소리라고 한다. 질소를 빨아들여서 나올 때는 하얀 유한비료가 나온다.  
꼭 흰 설탕처럼 생겼다. 그것이 60년대 우리나라 농업을 풍성하게 했던 주도적  
인 유한비료이다. 신비하다. 공기를 빨아들여서 비료가 나온다.

### # 축복 상실: 위치 이탈로 하나님 같이 되려함

마찬가지로 하나님 생명을 받아서 사람이 그것을 인격으로 배양하면 신비한 일  
이 벌어진다. 사랑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창조가 생기게 된다. 전혀 다른 세계가  
생긴다. 없던 세계가 생긴다. 이런 축복이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잃어버렸  
다는 것이다.

무엇을 상실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신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중요한  
직임이 상실되고 말았다. 사람은 사람대로 있으니까 흠박에 더 되겠는가? 흠만  
있으면 뭐가 되겠는가? 흠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고, 비가 오면 초원이  
된다고 한다.

인생이 왜 문제가 많은가? 그것은 이 귀중한 직임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동산을  
떠나자마자 아담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한다. 자기를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나무로 자기를 대신하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말하지 않고 객관적인 다른 것만 이야  
기한다. 성경도 자기와 관계된 것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인 지식으로 보기 때문  
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한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끝없이 연구를 하면 끝없이 이론이 생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자기와는 관계가 없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다. 사람이  
아메바에서 생겼다느니 단백질이 출렁거려서 되었다고는 하지만 자기와는 관계  
가 없는 말을 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아메바에서 진화했다면 우리 인생은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그 이  
야기를 하는 자기는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재미있는 말이 있다. 항상 진  
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동물원에 가니까 침팬지가 있다. 영락없이 사  
람처럼 생겼다.

나도 처음 보고 회의가 생겼다. 원숭이는 많이 보았지만 그런 원숭이는 처음 보

았다. 다른 동물과 다르다. 젓가슴이 앞에 2개가 있고, 새끼를 앉고 젓을 먹이는 것이다. 색깔만 시커멓지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다. 사람은 뭔가? 이런 생각이 잠시 스쳐갔다. 침팬지 앞에 가서 ‘여보, 당신 조상님에게 절 좀 하세요.’ 라고 하니 내가 왜 침팬지에게 절을 하느냐고 팔짝 뛰더라는 것이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말한다. 내가 침팬지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살 맛이 나겠는가? 갈 데는 또 어디인가? 동물원 밖에 갈 데가 없다. 사람들은 자기일은 아닌 것처럼, 자기일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모두 이야기한다.

성경을 볼 때는 꼭 자기와 관계된 것을 봐야 된다. 자기와 관계되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창조를 말하면 창조론인가? 나는 창조론이 아니다. 지금도 창조론과 진화론 둘이 싸운다. 미국 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곳은 진화론을 가르치고, 창조론을 가르치는 곳은 창조론을 가르친다고 한다. 둘이 끝이 없다.

나는 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이 귀중한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우주의 미아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올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다.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살아보았자 뭣 하는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전능자가 사람을 지었다고 하니 얼마나 희망이 생기는가? 전능자가 사람을 지을 때 공연히 장난으로 지었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도 목적 없이 만들지를 않는다. 모두 목적이 있어서 만든다.

만일 내가 그분의 목적 하에서 내가 생겼다면 내가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은 희망이 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런데 이것은 모르고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한다.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진화론을 대항하려고 창조과학회를 만들었다. 진화론은 진화론대로 강화하여 대항하고 있다. 성경에 있는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창조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복 주려고 하는 말이다. 성경은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쓴 책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쓴 책도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살아온 삶을 유전시켜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쓰여진 책이다.

입으로 전해왔던 것을 BC 800년경에 모여서 집대성하여 만들어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다. 자기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겠는가? 자기 후손들이 망하라고 썼겠는

가? 자기 후손들이 잘되라고 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가! 가문을 무시할 수 없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가문을 중요시했다. 임금이 충신을 찾으려면 효자 집안에서 찾았다. 효도하는 집안에서 충신이 나온다는 것이다. 불효자 집안에서 충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가정의 전통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따를 줄 아는 가정과 부모는 부모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가정과는 다르다. 앞의 장래가 달라진다. 부모 말에 잘 순종하고 따르는 집안은 그것이 전통이 된다.

요즘은 핵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사는 집이 많은데, 부모님을 모시는 집은 뭘 보는가?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아이들이 보고 자란다. 내가 불효하면 자식도 나에게 불효한다. 당연히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기 눈으로 보았다. 자식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 말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 자기는 불효하면서 자식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면 들겠는가? 듣지 않는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공경하라고 하면 누가 공경하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라고 하면 내가 백날 외쳐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장자회는 장년부에게, 장년부는 중심부에게, 중심부는 청년부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보고 형님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형님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배울 것이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라면 뿔 달린 송아지처럼 걸핏하면 치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

민주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윗사람이 하도 폭력을 쓰니까 그것을 없애버린 것이 민주주의이다. 그런데 교회가 폭력을 쓰는 곳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폭력을 썼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민주주의와는 성격이 아주 다른 것이다. 민주주의는 못된 인간이 만들어놓은 것이고, 위에서 하도 폭력을 쓰니까 할 수 없으니까 혁명을 통해서 없애버리고 민주주의를 만든 것이다. 폭군이 있는 것보다 낫다. 전제군주가 있어서 횡포를 부리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의 대부분은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왜? 사람이 자기 위치를 이탈해버렸기 때문이다. 권력이 생기면 폭력을 쓴다. 힘이 생기면 폭력을 쓴다.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였다. 이것은 계속 그렇게 한 것이다. 강한 자가 되면 약한 자를 죽인다. 네피림이 되었다. 그래서 땅을 파괴하게 했다고 한다. 땅을 파괴하게 했다는 말은 인간세계를 파괴하게 만들었다는 뜻이다. 사람은 권력을 많이 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독재를 경계한다. 권력이 많아지면 당연히 부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왜 어린양의 통치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가 있다. 호랑이 통치가 아니고 왜 어린양의 통치인가?

공산주의는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산당 선언문 마지막에 보면 폭력이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와 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뺏으면 가만히 있겠는가? 뺏기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뺏으려면 폭력이 있어야 된다. 뺏어야 분배를 한다. 공산주의를 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세계를 만들겠다고, 가장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겠다고 시작했지만 가장 악랄한 세계를 만들었다.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안 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본성은 자기 것을 수호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는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놓으라면 하면 이해하겠는가?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다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

우리나라도 그럴 것이다. 만일 재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먹기 위해서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내놓겠는가? 그래서 할 수 없이 폭력이 필요하다. 권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가 절대적으로 좋아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으니까 민주주의를 한다.

하나님 나라도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를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 교회가 될 수 없다. 윗사람을 보고 따라야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러려면 윗사람이 본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나라이지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킨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나가면 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이다. 이것이 많이 헛갈린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교회가 필요한가? 민주주의를 하려면 교회를 뒤흔어 하는가? 교회가 아니라도 많은 집단이 있다.

# 하나님이 찾아오심: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심, 이삭에게 야곱을 축복하게 함, 야곱에게 바로를 축복하게 함, 성막으로 오심, 성육신으로 오심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가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동산에서 가장 거룩한 직임을 맡았다.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생명을 증식하는 직임을 맡았는데, 이 직임을 잃고 나니까 뭐가 되었는가? 폭력이 생긴다. 소위 시민혁명이라는 유럽의 혁명은 상공인들이 모여서 군주들을 전부 없앤 것이다. 지금까지 군주들이 폭군 노릇을 했으니까 이들을 없애고 만들어놓은 것이 시민혁명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바탕이 된 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계속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역사는 희망이 없다. 여기서 희망이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듯이 위에서 맑은 물이 내려와서 좋은 물이 내려와서 아름다운 물이 내려와서 동산을 적셔야 인류가 회복된다.

인류가 회복되는 것은 공산화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좋은 물이 흘러내려 오는 것이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점점 연못에 물이 말라지고 냄새가 난다. 이것을 정수기로 돌려서 깨끗하게 하려고 해보았자 비가 오지 않으면 결국은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비가 짝악 오면 다 해결이 된다.

지금 가뭄이 들어서 어떤 논은 바짝 말랐을 것이다. 마르면 논바닥이 갈라진다. 농부들은 속이 탄다. 벼 잎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가는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이 말라 들어가는 것처럼 농민들은 애처로운 것이다.

옛날에는 논에 물을 대다가 싸우고 잘못하면 살인이 나기도 했다. 밤중이나 새벽에 가서 물꼬를 터야 되기 때문이다. 분명이 초장에 가서 물길을 우리 논으로 해놓았는데, 어떤 사람이 밤중에 가서 그 물길을 다른 데로 돌려버린 것이다. 아침에 가보니 내 논에는 물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것이다. 얼마나 화가 나겠는가? 그래서 싸워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다. 요즘은 양수기라고 있으니까 물을 뿜어 올리는데, 양수기를 아무리 동원해서 물을 뿜어서 올려도 바닥이 갈라진 논이 살아나기는 어렵다.

그런데 비만 한 번 짝악 와버리면 재해대책, 한해대책이라고 하다가 정부는 갑자기 바뀌어서 재해대책 수해대책으로 바뀌어버린다. 지금 사막이던 땅이 비가 오면 토지가 된다고 한다. 나는 사막이 원래부터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고 한다. 이 세상은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된다.

사람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된다. 먹을 것이 없는데 싸우지 않겠는가? 배고프면 싸우게 되고 도적질하게 된다. 아무리 교육해도 안 된다.

엑스플로74 때 30만명을 교육을 시킨다고 서울시내 모든 학교를 빌려서 수용을 했다. 30만 명분의 식사를 한 자리에서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밥을 했는데 밥이 나오지 않고 불은 쌀이 그냥 나온 것이다.

어떻게 다시 30만명 분의 밥을 갑자기 하겠는가? 그때는 삼립빵만 있을 때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삼립빵을 다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한 끼를 떼웠다. 처음에 왔을 때는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먹겠습니다.’ 하고 먹었다. 다음날 아침에 또 그랬더니 수군수군했다. 점심때는 될까 했는데 점심때도 안 됐다. 급하게 인천에 가서 새우젓을 사왔다. 소금 반 새우 반이다. 새우젓과 단무지와 빵을 또 주었다. 그 다음날 저녁은 소시지를 하나씩 넣어서 주었다. 이것을 먹고 나더니 웅성거리기 시작하는데 모세를 돌로 치라고 했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그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배고픈데 어떻게 하겠는가? 이틀만인가 어떻게 어떻게 되어서 밥이 나왔다. 만일 밥이 나오지 않았다면 집회를 못했다.

메마르면 땅이 갈라지듯이 사람도 메마르면 악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예를 들면 동산을 경작할 중요한 직임에 있을 때는 월급도 잘 주었을 것이다. 넉넉하게 살았다. 은혜가 넘치게 살았다. 그런데 이 직임을 상실하고 나니까 월급이 어디 있는가? 먹을 것이 어디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 남은 것은 악만 남았다.

두려워 숨었다. 형이 아우를 죽였다. 헛되이 인생을 살았다. 창세기 5장에 보면 800년을 살았다거나 900년을 살았다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살고 자식 놓고 죽었다는 것밖에 없다. 네피림이 되어서 폭력이 되었다. 마지막에는 흠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을 건축했다. 이것이 결국 분열이 되고 말았다.

신성한 직임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다. 왜 사람들이 이런가 하고 생각할 때마다 배경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깊이 생각해보라. 신성한 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조금 해결해놓으면 우선 해결이 된 것 같지만 금방 또 해결이 안 된다.

밤에 물을 대놓으면 그때는 물이 있는 것 같지만 아침에 가면 다 말라버리고 물이 없다. 그런 것이다.

인생을 원망할 것도 없고, 사람을 탓할 것도 없고, 남을 탓할 것도 없다. 어차피 누구든지 그런 환경이 되면 다 그렇게 된다. 우리말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는 말이 있다. 사흘 굶으면 담 넘어간다고 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람들로서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겨우 한다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그것은 분열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가? 이래서 찾아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인류를 보고 하나님이 벌만 주시고 있겠는가? 저주만 계속 하고 있겠는가? 아들이 잘못되어서 나갔으면 처음에는 꾸짖겠지만 그 아들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는가? 아들을 찾아 나갈 것이다. 부모가 아들을 죽으라고 하고 있겠는가? 온 세상을 헤매면서 그 아들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형무소에 가 있으면 돈을 주고 빼오고, 병들어 있으면 치료해 주는 분이 아버지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율법으로 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율법과 은혜는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율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왜 또 은혜를 말하는가? 이렇게 된다. 아버지이니까 그렇게 된다. 경찰서 같으면 그렇게 안 된다. 검찰청 같으면 그렇게 안 된다. 법원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 법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한 번 이래야 되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했으면 법은 그렇게 해야 된다. 법을 갑자기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법을 갑자기 바꾸는 경우가 많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가 왔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런 경우 동네사람들이 바로 돌로 쳐서 죽인다. 법으로 보면 죽는 것이 마땅하다. 법 밖에 없으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자를 살렸다. 이것이 법관의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 마음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잘못하면 벌 받고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법칙이 그렇기 때문이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다.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눈을 찌르라는 것이다. 누가 내 치아를 쳐서 빠지게 했다면 그 사람의 치아를 빼라는 것이다. 얼마나 이것이 올바른가? 내 치아를 뺏으니 네 치아도 빼야 되는 것이 너무 옳은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옛 사람은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한 것이 아버지 마음이다. 아버지는 법을 지키면 자식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하고 그 아들을 살려야 된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다.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감사합니다.’가 되지만 법률가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된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고 축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보고 오히려 저주가 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도 사실은 위법이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정녕) 죽으리라(창2:17).”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 말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정녕) 죽으리라(창2:17).”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또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법을 어긴 것이다.

이것은 다른 데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일이고, 부모자식 간에만 통하는 일이다. 아버지는 모두 이 마음이 있다. 아버지가 되어 본 사람은 너무 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어머니가 되어 본 것은 자식에게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어머니 마음을 갖게 된다.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된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할 일이 아니다. 나는 너를 키우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해야 된다. 키울 때 행복했지 않은가. 쓰레기 같은 인간 속에서 어디서 그런 사랑이 나왔겠는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고 한다. 고슴도치 속에서 무슨 사랑이 나오겠는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나오는 것이다. 먹을 것밖에 모르는 돼지도 새끼를 낳으면 젖을 주느라고 애를 쓰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

개는 자기가 배고파도 안 먹을 것 같다. 이 놈이 새끼들이 먹으려고 하는 데도 주지 않고 먹는다. 저런 무도한 놈이 어디 있나하고 생각했는데, 뒤로 생각해 보니 어미가 먹어야 새끼에게 젖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살아야 자식을 살린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바벨탑에서 분열된 인간 속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그리고 뭘 하셨는가?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주셨다. 나는 이 말이 너무 좋다. 왜냐하면 100살 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을 알았다. 아들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지 못하지만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보니까 너무 감사가 되었다.

나는 언제든지 100살인 사람이다. 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다른 아들은 많이 낳았지만 중요한 것은 후사가 될 아들을 낳지 못했다. 옛날에는 후사가 없으면 자기 기업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100살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다 포기하고 끝났다고 하고 있는데, 찾아오셔서 기어코 아들을 준다고 하셨다. 아브라함은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했더니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태기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한다. 내가 지금 나이가 99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나고 했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했다는 말이다.

그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 처음에 그 말을 들으니까 희망이 되었다. 이삭을 축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축복을 누리게 했다. 마지막에 에서를 축복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하고 만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이삭은 너무나 연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서 분별력이 없어서 이런 실수를 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다. 어떻게 실수해서 축복해 놓은 것을 야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겠는가?

나는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자식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는 분간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해서 야곱을 축복하게 해놓았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실수다. 장자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맛있는 별미를 가져오라고 해놓고 야곱이 잔피를 부려서 음식을 만들어 오니까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만져보니 에서의 손이네 하고 축복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데 만일 이삭이 정신이 총총해서 또릿또릿했다면 야곱을 축복을 하겠는가? 안 한다. 이 놈아 애비를 속이려고 왔느냐? 당장에 저주를 받을 것인데 모르니까 축복을 해버렸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야곱은 연단을 하면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에서는 사람은 좋은데 연단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연단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은 왜 교회를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된다. 이상하다. 어떻게 생각하면 불공평한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전도를 해오면 우리 교회에 유익 하겠다하고 전도해

보면 대부분 안 된다. 저런 사람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기어코 와서 어느 날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측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어리벙벙해서 모르겠다. 하시는 대로 볼 수밖에 없다.

이삭은 눈이 멀어서 야곱을 축복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왜 눈이 멀어서 축복하게 했는가? 총총하게 놔두면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이 기가 막힌 해석이다.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 축복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면 되지 않겠는가?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낫다. 나는 왜 이런 것이 복이 되는지 모르겠다.

야곱을 20년 동안 단련했다. 야곱은 고약한 사람이다. 성경을 보면 알지만 잔꾀도 많고 욕심도 많고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 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어서 그 어마어마한 바로의 궁전에 가서 바로를 축복했으니까 놀라운 일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로를 축복한다는 말인가? 바로가 누구인가? 애굽의 왕이다. 그 왕을 축복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외에는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왕이 축복을 받고 있겠는가?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야곱은 겁도 없이 바로를 두 번 축복했다고 나온다.

바로의 궁전이 으리으리했겠지만 그것까지도 눈도 어둡고 보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어 놓은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

눈이 똑바로 떠지고 젊었더라면 그가 바로 앞에서 얼음이 되고 만다. 얼어서 말도 못한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을 하겠는가? 그런데 네 나이가 얼마나 하니까 내 나이 130살인데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다. 그 사람이 바로를 축복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참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개인시대다.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형성될 그때는 성막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성막을 지어서 그곳으로 오라고 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했

으니까 성막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으로 찾아갔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육신 하신 것으로 찾아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고 했다. 이 말씀은 성막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질로 된 성막이 아니고 인격으로 된 성막으로 왔다는 그 말이다.

옛날에는 물질로 된 성막으로 가서 내가 아닌 다른 동물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 너무 먼 것이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난 것이다.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지 그 정도 밖에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나마라도 가서 여호와를 만나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나와서 이리이러해서 너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면 그런 줄 믿었던 것이다. 마치 요즘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님께서 용서해주는 것처럼 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뭔가 찝찝하고 확실치 않다. 그리고 한해가 지나면 또 가야 한다. 매년 가야 한다. 왜? 어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늘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그렇게 예언을 했다.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 31:33).”**

결국은 이 말이 성육신이라는 말이다.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내 생명이 기록된다 그 말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한다는 그 말이다. 그러면 성막에 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잘못 들어서 이제는 교회도 갈 필요 없고, 자기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내 안에 다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안에 찾아간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우주적 교회를 말하면서 지역 교회를 무시한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예수님이 있으면 그런 소리를 못한다.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죽어야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겠는가? 지금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자기는 안 죽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성막을 지어 놓았을 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거하시매”라는 이 말은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시매”라는 그 말이다. 성막이 되시매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성막을 보면 예수의 인격이 묘사되어 있다. 성막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이다.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 그 또 안에 지성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고 시은소가 있고 속죄소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단에서 나온 피를 가져다가 거기다 뿌리면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 화목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식이었다. 실체가 아니고 의식이었다. 이것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모른다.

맨 처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렀다.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고 오면 죽을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모세 혼자 산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있었다. 모세밖에는 하나님을 대면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이 되시매 우리가 누구든지 갈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에게 갈수 없게 되어 버렸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난다.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안 된다. 친근하고 싶지만 친근하게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애인 모시듯이 모시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간지러운 소리이지 그것이 되겠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다니겠는가? 그것이 안 된다. 나도 해보려고 많이 해봤는데 안 되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을 꼭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겠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기도할 때 기도했다. 하나님 매일 같이는 안 될지라도 단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낮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저녁에 결산을 하니 까 도로 아미타불이다. 여러분도 해보면 되는가? 안 된다.

#### # 예수를 영접해야 함: 이적을 보이심, 순종의 본을 보이심, 골고다에서 죽으심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분이 왔어도 우리가 못 만나면 어찌 하겠는가? 그분이 왔는데 우리가 못 만나면 또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왔다.

첫 번째로 보이신 것이 이적을 보이신 일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본 것이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정련하게 정리해놓았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

리에게 오셨는가를 아주 질서 있게 정리해놓았다. 생명의 노선에서 정리해놓았다.

사람들은 놀라운 이적을 봤다. 물위로 걸어가는 것도 봤고 심지어는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다.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때 빵도 얻어먹고 이런 것을 경험했다. 이런 것을 경험하다가 보니까 신기한 사람으로 알게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되겠는가?

이것은 옛날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다. 내가 목회를 한다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큰 교회에서 북적거리는데 놀랍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내가 목회하던 교회가 독립문 바로 위에 지금 금화터널 입구에 바로 있었다. 그리고 순복음 교회는 서대문 사거리에 있었다. 걸어서 15분밖에 안 걸린다. 순복음교회 집회할 때 가보면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짹 차서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고 병 고친다.

그런데 내가 있는 교회로 오면 한 70명이 냉랭하게 앉아있는데 기가 죽는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불쌍하다. 차라리 그 교회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차마 그 말은 할 수 없지만 목회하는 사람이 그 말은 못하고 차라리 저 교회로 가는 것이 낫겠다 했다. 왜냐하면 거기 성도들은 생기가 넘쳐서 난리인데 우리 교회에 오면 생기 넘칠 일이 뭐가 있는가? 냉랭했다.

그래서 나도 그런 것을 얻어 보려고 쫓아다녔다. 나는 원래 그런 것에 취미가 없고 배우기도 그런 것은 배우지 않았는데 보니까 눈이 뒤집힌다.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것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 따라 다녔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가? 한번은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가서 해도 안 되느냐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마17:20).”**고 하셨다. 우리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은 안 된다는 말이다. 믿음이 좀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고 안 된다는 말이다. 너희가 나를 본받아 이 짓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사 이비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마구 부러웠다.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어찌하면 저렇게 됩니까?’ 하고 묻고 싶지 않았겠는가?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때는 삼각산에 가면 기도원이 많았는데 삼각산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군데군데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이 다 방언찬송이다. 방언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흥만하면 저렇게 하는가? 나는 언제 저렇게 흥만해지는가? 맨날 그 생각이다.

그래서 온갖 곳을 다 쫓아다녔다. 그런 성질이 아닌데 급한데 어찌겠는가. 교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 별 곳을 다 가보았다. 그런데 나는 안 되었다.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접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 얼마나 비참한 목회를 하겠는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해도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그랬는데 또 교단에서 나를 나가라고 했다. 나는 기어코 버티고 안 나갔다. 갈데가 없는데 어찌하겠는가? 그리고 다행히 교회 집사님이 나를 옹호해주니까 있었다. 집사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어찌하겠는가. 이것이 산 것이 아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다. 결국 4년 만에 할 수 없이 그만두고 나왔다.

그리고 C.C.C.에서 나를 불러줬다. C.C.C.에 들어가니까 잠시 동안 편했다. 왜냐하면 방언을 안 해도 C.C.C. 간사는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열심이 있다. 여기서도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접지 못한다.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큰 위력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그리고 충주에 와서 성경공부를 하다가 막혀서 워치만 니를 만나게 되었다. 거기서 만나서 다른 세계를 보았다. 방언하고 북 치고 장구 치는 세계가 아니고 신앙세계라는 그런 세계를 본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않겠지만 그냥 그렇게 비참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별 재주가 없다.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다.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버린다.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막았다는 생각이 든다. 마음먹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막아버리고 하려고 하면 막아버린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했다. 그런데 내가 공부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내 머리가 얼마나 복잡했을까? 정말 나는 감사하다. 내가 달라는 것을 주시지 않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면 엉뚱한 길로 갈 뻔했다.

예수님이 이 은사들을 아무리 시행해도 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따라 다니면서 우

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보여주신 목표가 안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다. 믿음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이 더 강하다. 믿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좋다. 그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았다. 부흥사도 많았고 많았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다른 기적이 없다.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 이 없다. 나는 예수님께서서 해보니까 이것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 겐세마네로 가는 길로 간다.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도이다. 내 뜻을 버리고서라도 아버지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의 자유의지이다.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다. 자유의지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죽기로 각오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서의 극치이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 자유의지의 승리를 거두었다. 아담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승리하지 못한 자리에서 예수는 자기의 자유의지로 승리했다. 아담은 먹지 말라, 정녕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도 자유의지가 있었다. 아담도 자유의지가 있었다. 자유의지보다도 더 큰 사기꾼을 만났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소용이 없다. 내가 아무리 자유의지가 크다고 해도 그보다 수가 훨씬 높으면 나는 못 당한다. 속는 줄 모르고 속는다.

장기나 바둑을 두어 본 사람은 아실 것이다. 분명히 내가 이길 줄로 생각했는데 계수를 해보면 내 말이 적다. 나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른다. 아무리 해도 내가 왜 졌는지를 모른다. 고수를 만나면 그렇다.

우리 교회 형제의 삼촌이 있는데 이 분이 주먹으로 유명한 분이다. 스피드가 유명한 분이다. 주먹이 빠르는데 맞는 사람은 언제 그 주먹이 들어오는지를 몰라서 언제 맞았는지를 모른다고 한다.

진짜 고수를 만나면 즐겁게 웃으면서 속는다. 사기꾼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속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속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희망을 가지고 속는다. 요즘 사기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희망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망한다. 못 말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



기를 원하나이다(눅22:42).”라고 했다.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아담을 능가한 것이다. 승리했다.

문제는 그분은 승리했지만 제자들은 잠을 잤다. 오호 통제라.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서 승리하셨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 와서 깨워놓고 가면 또 자고 깨워놓고 가면 또 잤다. 예수님 제자들은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었다. 성경에 보면 거짓말을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사실 그대로이다.

왜 그렇게 잤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분이 왜 저렇게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느냐는 것이다. 바깥에는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다니는데 겨우 한다는 기도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22:42).**”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감당이 되겠는가? 제자들 마음에 기도가 차지 않는다. 저들을 한 방에 물리쳐주십시오, 발목을 부러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잠을 자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잠을 잤겠는가?

오죽이 못 났으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22:42).**”라고 하니까 졸릴 수밖에 없다. 잠을 잘 수밖에 없다. 참여가 안 된다는 것이다.

강의실에서 강의가 들리지 않아도 잠이 온다. 지금 혹시 잠 오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잠이 온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런데 말씀만 들으면 잠이 오는 사람이 있다. 옛날에 아무개 권사님 왜 자느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에 고춧가루 좀 치라고 했다는 말이 있다. 설교가 화끈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다. 나도 혹시 졸리는 분이 계실까봐 걱정이 된다.

제자들이 잤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99%가 다 이 기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기도에 참여한 사람이 가끔 있다. 그리고 어지간한 일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 앞에 놓고 있으면 할 사람이 몇 사람 안 된다. 중요한 사냥을 놓고 있을 때는 평소에는 잘하다가도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 사람이 자기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내놓고 하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내놓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순교자이다. 이분들은 예수와 함께 승리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존경해야 된다.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자 혹은 복자라고 하여 존경한다. 당연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럴 사람이 못된다. 나도 그럴 사람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 데, 나는 그럴 사람이 못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의지가 무너진 날, 우리의 종교의 믿음에 한계가 와서 무너진 날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불쌍한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서도 예수님의 겿세마네 기도예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런데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더 많다. 학교 선생님이 시험문제를 냈는데, 답안지 채점을 해보니까 30명 중에 2사람만 합격하고 28명은 불합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28명을 모두 불합격 처리를 하겠는가? 아니면 시험을 다시 봐야 되겠는가? 이것이 선생님의 고민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했는데 참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요즘은 가끔 있지만 그때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면 포기할 것인가? 인류 너희는 할 수 없으니 죽으라고 하고 자기 혼자 천국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만 데리고 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다 구원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겠는가?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예수가 필요한가? 한 사람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길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하나님 밖에는 할 수 없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어떻게든 시험을 보면 100점부터 0점까지 있는 법이지 똑같이 100점을 맞을 시험지는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것이다. 골고다로 가신 것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골고다로 갔다.

자유의지로, 인간의 자유의지로, 내 신앙심으로 영접이 불가능한 사람들, 참여가 불가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골고다로 보냈을 때는 왜 보냈겠는가? 예수님께서도 가시고 싶어서 가셨겠는가? 하나님이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는가?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거기에는 ‘믿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못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는가? 못 믿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아들이 다섯 명이 있는데, 네 명은 다 잘 됐다. 그런데 한 놈이 못 됐다면 아버지가 네 명이나 잘 됐으니까 됐다, 너는 못 돼도 된다고 하겠는가? 아니면 이 아들까지도 잘되게 하고 싶으시겠는가? 잘 되게 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 마음이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연약한 자식에게 더 있다고 한다. 물론 똑똑한 자식도 좋아하겠지만 쳐져 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빼앗긴다고 한다. 그것은 스승의 마음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이다.

오죽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롬5:20).**”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넘치겠는가? 그럴 수 없다. 오죽하면 그렇게 되겠는가? 오죽하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골고다로 보내신 것이다. 만민을 포함할 수 있는 자리로,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자리로 보냈다는 말이다. 겿세마네에 가서도 안 되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자리로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단 말이다.

그것이 십자가다. 골고다의 십자가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 겿세마네에서는 잠을 잤는데 골고다에서는 다 떠나가 버렸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 그 안에 모든 인류를 포함한다는 개념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었다. 그런 생각이 없었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것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 # 십자가 안에 있는 구원: 함께 죽고 함께 삶

예수를 직접 보지 않았던 바울에게 이 계시가 왔다. 로마서 6장을 읽으면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고 한다. 우리는 죽은 일이 없다. 언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가? 우리는 다 달아났던 사람들이 아닌가? 1차적으로는 잠졌던 사람들이고 2차적으로는 더 달아났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3:23,24).**”고 말했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롬6:8).**” 두 사람 다 함께 죽고 산다. 이 놀라운 계시를 발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안에 모든 인류를 포함하시려고 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깨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 달아날 사람들이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왔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는가? 모른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찾아오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가? 우리 안에 개념이 없는 말인데 어떻게 그것을 알겠는가? 모른다.

그런데 바울이 이 놀라운 말을 했다. 우리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것을 몰라도 우리가 그 안에 참여 했다고 했다. 이제 내가 보니까 그렇다. 내가 그 안에 있다. 겐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분 안에는 내가 없지만 십자가에 죽은 분 안에는 내가 있지 않은가?

거기는 예외가 없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 거기는 내 의지로 거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확보한 자리가 아니고, 내가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인 것이다. 내가 있는 곳까지 다 내려와 버렸다는 말이다. 이것은 바울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놀라운 일이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롬 6:8).**” 이것이 참 묘한 말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롬6:5).**”는 참 놀라운 말이다. 이것은 수학으로 계산해서는 모른다. 과학으로 계산해서도 모르고 이상한 말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이다. 사실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말이 아니고 사실이다. 나는 그 안에 있다. 나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각자 다 다르다. 이것도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다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한 자리, 그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이것은 다 아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놓은 것은 다른 것,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만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 예수와 함께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예수도 다른 사람인 줄로 아는데 그 사람이다. 우리도 다른 사람인 줄로 아는데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하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그것도 바울의 말이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1:30).”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그렇게 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왜냐하면 그분과 내가 한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고 한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원 위치로 회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따로 어떻게 회복한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다.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된 것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그 자리에서 없어진다. 이제 나는 이탈된 사람이 아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은 이탈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탈되었다. 다른 사람으로 아담과 함께 이탈되었는데 예수 안에 와서 내 자리를 보니까 이전의 이탈된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질문해야 된다. 요즘 사랑방에 질문한 것을 내가 답변으로 써 놓았다. 질문과 답변 코너를 만들려고 하다가 우선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혹시 오늘 이해가 다 안 되신 분은 사랑방에 다 질문을 하시기 바란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대답을 해 드리겠다. After Service를 해야 된다. A/S 까지 확실하게 하겠다. 될 때까지 말이다.

김\*식형제는 어째서 목사님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시는지 알겠다고 답글을 써 놓았다. 김\*식형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써 놓았다. 같은 말 같은 데 들으면 또 다르고, 같은 말 같은 데 또 들으면 다르다는 말이다. 김\*식형제처럼 될 때까지 계속 질문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 # 의지의 한계는 깃세마네의 실패로

의지의 한계! 깃세마네에서 실패,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골고다인데 거기 밖에 없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 중에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 구속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원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채워져야지 안 되면 곤란하다. 그래도 안 되면 예수님이 또 죽어야 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갈3:1).”는 말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온다.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것은 율법을 보고 한 말이다.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와서 혼란케 하니까 한 말인데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눈에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는 것이다.

무슨 생각이 꾀는 것이 아닌가? 사람 속에 있는 무슨 생각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너무 명백하게 갈라져 있는 것을, 확실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무슨 생각이, 무슨 지식이 잘못 들어와서 그것을 가리고 있단 말이다.

뛰어 내릴 수 있는데 안 뛰어 내렸으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은가? 뛰어 내릴 수 있는 분인데 안 뛰어내렸다면 나와는 천리만리 멀다. 뛰어 내릴 수 없다는 말을 내가 왜 강조하는가? 뛰어내릴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이다.

뛰어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뛰어내렸다고 하면 나와는 영 판 판이다. 그것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것보다 더 멀다. 한 없이 구만리나 더 멀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구원을 헤매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찾아 다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라고 한다. 예수를 통째로 받아들여라, 영접하라고 한다. 어느 종교이건 그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종교는 없다. 그 사람의 가르침을 지켜라. 따르라는 말은 있지만 받아들이라는 말은 없다. 공자님도 자기를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다. 석가모니도 자기를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만 **‘나를 영접하는 자’**이라고 말한다. 나 있는 곳에 저희도 있을 것이다. 너무 쉽다. 내가 그 안에서 그분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은 너무 쉽다. 내가 그분과 따로 있는데, 그분을 따라 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런데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다.

내가 그분 안에서 내가 염려할 것도 없다. 예수님이 어디로 달아날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사라질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버리고 갈까 하는 염려도 없다. 아무 염려가 없다. 함께 사는 것이고, 함께 있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다.

천당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좌우간 함께 가는 것이다. 비행기를 타니까 다

같이 미국에 도착한다.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비행기를 타고 열 댓 시간 있다가 보니까 다 뉴욕에 도착했다. 같은 비행기를 탔다는 것뿐이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같은 것이 없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운명적으로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유의지는 왜 이렇게 약한가? 나의 종교심은 왜 이렇게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충성심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되기는 뭐가 되는가? 그 안에 있는 것이 전부이지 뭐가 되는가? 이번에 누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했다. 그 다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그 안에 있겠는가? 그 다음 일까지 생각하고 어떻게 기다리겠는가? 그것은 지식이 와서 그렇다. 지식이 오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당연히 묻는다. 그것은 미리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같이 죽었는데 하기는 무엇을 하는가? 그분이 살면 나도 산다. 그분이 행하면 나도 행하고, 그분이 하는 대로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함께 죽었으니까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히브리서 뒤에 가면 모세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런 말이 나온다. 그 말은 안식을 못 주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저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고 했다. 자기 일이 없어졌다는 말이다.

그분과 함께 있는데 내 일이 없다. 내 일이 없는데 왜 분주한가? 내 일이 없으니까 걱정할 일도 없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자연스럽게 할 것인데 미리 염려하고 있다. 미리 염려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게 한다.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다.

그러면 의지가 강하느냐 약하느냐 이런 것은 소용이 없다.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도 상관이 없다. 우리의 기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안에 있는 것만이 전부다.

여자가 좋은 남편 만나서 시집갔으면 그만이지 시집가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 시집을 못 간다. 진짜 좋은 사람 만났으면 그냥 무조건 가놓고 봐야지 거기서 계산하고 있으면 어떻게 시집을 가겠는가?

타고르의 유명한 시가 있다. 사랑이 네게 손짓하거든 그 가슴에 비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거기에 뛰어 들어라는 것이다. 그래야 사랑을 알지 사랑이 손짓하고 있는데 계산하고 있으면 그놈의 사랑이 오는가?

사랑했다가 배신하면 어떻게 하나? 사랑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말을 시작했는데 말을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못 한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못 해봐서 제대로 연애를 못 해봤다. 내가 사랑한다 했으면 될 것인데, 거절당하면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사랑한다 말을 못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평생 사랑을 못하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각오를 하고 사랑한다고 해야 사랑이 되는 것이다. 사랑이 네게 손짓하거든 그 가슴에 비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 품에 안기라는 것이다. 내 말이 아니고 타고르의 말이다.

### # 죽음 안에서만 연합이 가능

이 죽음 안에서 연합이 가능하다. 연합이 되면 다 된 것이다. 그 다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졸리면 자면 된다.

예수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자고 일어나면 꾸중 들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못 잔다. 그런데 졸리니까 자는 것이다. 다 버리고 도망쳤다. 도망쳤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못 달아난다. 그런데 보니까 싹수가 끝났단 말이다. 그러니까 도로 고기 잡으러 가자고 가 버렸다.

그것이 정직한 것이 아닌가? 정직한 것이다. 내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못 달아났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거기서 주님은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도망갈 것이 아니고 여기서 철야를 하더라도 기다려 봐야 된다고 했으면 우리는 영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린다.

우리는 그렇게 못 할게 아닌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판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내가 도망갔다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했으면 못 도망갈 것인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나를 자세히 생각해 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사람인지 모른다.

잠자는 사람도 우리를 위한 사람이고 도망간 사람도 우리를 위한 사람이다. 심지어



어는 가룟 유다도 우리를 위한 사람이다. 하나도 버릴 사람이 없다. 다 우리가 예수 안에 연합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다 생명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 안으로 인도해 준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내가 쫓아가지 못해도 찾아오신 주님, 내가 버리고 가도 또 찾아오신 주님, 제자들 앞에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리신 주님, 이런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나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 성자가 없는가? 예수만한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서는 이 분밖에 없다. 나는 너무나 단순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복잡한 사람이었다. 의지도 약하고 이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까 저렇까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일을 결정하지 못한다. 천성이 결정을 못한다.

요즘에는 복잡한 일이 없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일이 없겠는가? 다 있다. 일이 많이 있다. 일이 많이 있는데도 복잡하지 않은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복잡하지 않은 것이다.

복잡한 것을 보면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이다.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다. 좋은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 복잡하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간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은 일이 10개가 있든지 100개가 있든지 똑 같다.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우선순위는 하나뿐이다. 또 있고 또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하나뿐이니까 우선순위만 하면 된다. 다음의 것은 우선순위가 끝이 나와 다음 것이 온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다음 것이 오겠는가? 나는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다. 머리가 아주 복잡한 사람이다. 그래서 젊은 날에 하나님을 찾느라고 애를 썼다. 구원을 헤매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니 어디 하나님이 있겠는가? 복잡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하게 만들어 버렸다.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실제로 육신적으로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어찌하든 잊어버리려고 한다.

요즘 같으면 많이 좋아져서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쉽다. 100가지가 있어도 우선순위는 하나뿐이고 10가지가 있어도 우선순위는 하나뿐이다. 언제나 우선순위가 있으면 아주 쉽다.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헤매는 것이다.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하는 것인데 해 볼 필요가 전혀 없다.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하겠는가? 못 한다.

**[ 기 도 ]**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을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아들로 또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가 아들 안에서 안식하도록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이 주신 이 안식에 참여하도록 주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